

“힘 모았다, 단일후보에 힘 실어달라”

야4당 대표 야권연대 타결 선언 공조 본격화

단일화 효과 미지수... 총선·대선 정책연합 추진

민주당 등 4개 야당 대표가 13일 4·27 재보선 야권연대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재보선 승리를 위한 공조 체제에 본격 들어갔다.

그러나 야권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결합이 있어야 하지만 내부적 상황은 여의치 않은 형편이어서 사실상 ‘무늬만 연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의 단일후보 배출은 2012년 총선,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단일후보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10대 공동정책 의제에도 합의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책연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정책 의제는 ▲물가고, 전세대란, 대학생 등록금 등 민생현안 최우선 해결 ▲국정조사 실시 등 규제·AI(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추진 ▲최저임금 현실화 및 법정규칙 제도 개선 ▲‘날치기’ 민생예산 회박과 날치기 악법 폐지 ▲4대강의 생태적 복원과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이다.

또한, 한미-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저지와 전면적 재검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추가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증 추

일부 선거만 지역 단위의 선대위를 꾸리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과 참여당은 중앙당 공동선대위를 꾸리고 각 당 대표가 주말마다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공동 유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별로 복잡한 정치적 상황도 야당의 전면적인 결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무(無)공천한 순천은 민노당 김선동 후보가 단일후보로 뛰고 있지만, 전·현직 지방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 무공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최근 무소속 조순웅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는가 하면 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민노당 김선동 후보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과 참여당이 처열하게 결합했던 김해 읍은 ‘단일화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단일화를 이루기까지 양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며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뜻 단일후보인 참여당 이봉수 후보를 지지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야권연대를 매개로 각 당 지지자들의 화합적 결합과 초당적인 협력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순천과 김해와는 물론,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분당과 강원지사 선거에서 ‘단일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27 재보궐선거 야권연대 타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조용한 선거’ 전략 딜레마

중산층 공약에 지지층 결속력 약해지고 재보선 ‘정부 심판론’ 전략도 차질 빚어

민주당이 4·27 분당을 보선 선거전략 때문에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다.

후보인 손학규 대표가 ‘조용한 선거’ 전략을 펼치면서 애초 분당을 중심으로 ‘현정부 심판론’을 확산한다는 전체 재보선 전략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대표를 분당에 출마시켜 놓고 다른 지역을 위해 분당을 선거전략을 수정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난처한 상황이다.

이 같은 딜레마는 애초 예상했던 것으로 분당의 지역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분당은 한나라당 텃밭으로 대어 공세에 집중하면 오히려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

적이다.

때문에 손 대표는 14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에도 일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보다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비전 제시에 주력하는 현 기초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도 무대응으로 맞서기로 했다.

또 이번 재보선에서 연대협상을 타결,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구축한 야권의 선거공조 체제도 자칫 이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타지역과 달리 분당에선 야권 공동 선대위로 두지 않기로 한 상태다. 참여당의 유시민 대표의 지원도 분당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도 있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강원지사 보선 세대결 팽팽

안상수 선거사무소 개소 참석 박지원 등 지도부 출동 총력

4·27 재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강원도에서 모든 당력을 집중하는 팽팽한 세 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강원도를 찾아 영기영 강원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지원 활동을 본격화했다. 안 대표는 개소식에서 ▲2012년 12월까지 운문~원주 복선전철 연결 ▲원주~여주 복선전철 설계역비 반영 ▲대기업 유치

를 약속하며, 강원 발전을 위해 강원지사·강원도민·이명박 대통령·한나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박자론’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어 강원도 직능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하며 지역여론을 수렴했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로 출발하기 전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 경기당협위원장, 부산·울산당 협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4·27 재보선 선거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최문순 후보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원내대표, 천정배 최고위원, 한명숙 전 총리 등과 이날엔 사무총장, 유선호·강기정·박

유선·장세환 의원, 이상우 전 의원 등이 강원도로 총출동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 영기영 후보를 공격하는 한편 ‘이광재 동정론’을 자구, 야권 성향의 표심을 결합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박 원내대표는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 선대위 회의에서 “엄 후보는 김대중 정부에서 MBC 보도국장, 노무현 정부에서 사장을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쫓겨났는데 후배들을 배신하면서 한나라당으로 갔다”며 “엄 후보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배반할 사람”이라고 맹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4·27 재보선 현장

화순군수 재선거 진보정당 단일화 결렬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백남수 후보와 진보신당 최민환 후보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

13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따르면 백 후보와 최 후보측은 최근 세차례 만나 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여 왔으나 최종 결렬됐다.

백 후보 선대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화순군민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거 때까지 후보단일화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화순 도의원 보선 민주 VS 민노

화순군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노동당 김기철(43·수의사) 후보가 13일 등록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 김 후보와 민주당 구복규(56·전 화순읍장) 후보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민노당 화순군 위원회의 당원 총회에서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후보로 결정됐다.

민노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무투표 당선으로 도의원이 된지 일 년도 채 안된 사람을 군수후보로 출마시켜,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며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아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남표 총장 해임”

교과위 야당 의원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남표 총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최근 KAIST에서의 잇따른 자살 사태는 무리한 학사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기인하는데도 서 총장은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등 반교육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구제역 유행 경로 국회서 검증키로

여야, 과학자들에 의뢰

구제역 발생 원인과 관련, 우리 정부 발표와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결과가 상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추천한 과학자를 주축으로 ‘구제역 유행 경로 과학적 규명을 위한 검증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구제역 바이러스 DNA 분석 결과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베트남 바이러스가 아니라 홍콩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구제

역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99.06% 일치하고, 2010년 4월에 발생한 강화 구제역 바이러스와도 염기서열이 매우 유사하다는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의 결과를 두고 구제역 발생원인과 책임에 대한 촉산논쟁과 정부 그리고 학계와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
취업률 80% 이상 보장!

청년취업아카데미

(인재육성아카데미 5기)

- 참가자격 : 대학 4학년(전문대2학년)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 접수기간 : 2011년 4월 6일(수) ~ 4월 19일(화)
- 교육기간 : 2011년 5 ~ 11월 / 주1회 (11월8시간)
- 교육비 : 전액 무료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각 1부(봉투왕식사용)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4.22) → 합격자 발표(4.26)
- 참가지점 : 교육비무상, 취업컨설팅/연계, 기업체우선추천
- 수강과목 : 6개 과목 중 한 과목 선택 수강신청

구분	과정명	연수기간	요일	장소	인원	비고
수강과목 (택1)	① 무역실무	7.1~8.31 주1회	화	아카데미	20명	협대대학재학생 학점인정
	② 영업실무		화	아카데미	30명	
	③ 생산관리&품질관리		수	아카데미	30명	
	④ 기본OFFICE&실무수습		수	조선대학교	60명	
	⑤ 유통&마케팅실무		목	아카데미	20명	
	⑥ 프로젝트관리		금	아카데미	30명	
기본과목	CEO,CTO,CHO특강		목	조선대학교		
공통과목	기업실무문제해결과정	5.6.9.10.11				전체연수생분반목
	의사소통능력개발과정	월2회		금&토	아카데미	
필수과목	구직실제훈련					
	에버신인사지원연수	6.25~29	토~수	서울/경기 기업연수원		
행사	입학식 / 수료식 / 취업멘토링데이 / Home Coming Day					

○ 신청서접수 : 인재육성아카데미 교육과 (광주 동구 장동 31 KT광주지사 2층)
○ 문의 : T.062)224-7733 / F.062)224-7736 / H.010-3635-8396

무주사랑 (사)인재육성아카데미 이사장 정찬웅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로그인 디자인 컨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폭주!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상담문의 010-2637-9358
마블아이앤씨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 ▶ 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액 : 500만원~8,000만원
- ▶ 금리 :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이신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액 : 500만원~5,000만원
- ▶ 금리 : 년 9%~
- ▶ 대상 :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구중개업 등록기간 : 대구광역시 대표자 : 백영학
제1금융권이자율(최저) 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 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 13.3%~44%(연체금리 44%)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잡힙니다.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